

호남의 문화공간과 풍류 그리고 공감장*

조태성**

차 례

1. 들어가며
2. 정치·문화공간으로서의 모정과 누정
 - 2.1. 모정의 현대적 개념과 성격
 - 2.2. 전통시대의 모정과 몇 가지 기능
3. 모정에서 누정으로, 풍류호남
4. 다층공감장으로서의 모정과 ‘일상-텔링’
5.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전통시대 호남의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모정과 누정을 다루었지만, 그런 공간들의 상황을 단순히 나열하고 분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층위의 공간으로서 그것들이 가진 원초적 성격을 탐색하고, 어떤 양상으로 계승되어 왔으며, 또한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먼저 정치·문화공간으로서의 모정과 누정에 대해 그 현대적 개념과 성격을 일별한 다음, 전통시대 모정의 양상에 대해 기록을 통해 천착하였다. 나아가 모정이 누정으로 대체되는 지점과 그 안에서의 풍류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다층 혹은 중층공감장으로서의 모정에 대한 현대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안해 보았다. 대개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던 ‘풍류’의 어떤 지점들을 지금 우리의 삶에 투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모정 문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 (2018S1A6A3A01080752).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핵심어 : 모정, 누정, 풍류, 문화공간, 공감장

1. 들어가며

전통시대 호남의 문화공간을 꼽으라면 대개 누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더불어 누정에서 이루어지던 시회(詩會)나 유흥 및 교유를 들어 풍류를 언급하는 것도 어색한 일은 아니다. 이 글 역시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런 공간들의 상황을 단순히 나열하고 분석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층위의 공간으로서 원초적 성격을 탐색하고, 그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계승되어 왔으며, 또한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말해보고자 한다. 그 대상이 바로 모정(茅亭)과 누정이며, 그런 공간들의 관계들이다.

흔히 누정은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고들 한다. 그곳에는 풍류의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수려한 경치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세워져 모든 이들이 쉬어 찾아 쉬어가게 하는 곳. 그곳에는 역사의 술한 애환과 시인묵객들의 시정, 학문 강론의 열띤 자태가 은밀하게 숨어있으며, 또한 향촌마을 선비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소박한 열의와 역사의 전환기 속 우국지사의 울컾은 기상이 곳곳에 묻어있다고도 말한다. 간혹 마을 어귀 당산나무 곁에 서서 마을을 품고 사람들을 안아 그들의 희로애락을 살포시 다독여주는 그런 곳이라도 한다. 그래서 모정(母情)같은 모정(茅亭)이라도 말한다.¹⁾

이런 시각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정치·문화공간으로서의 모정과 누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모정의 현대적 개념과 성격에 대해 일별한 다음, 전통시대 모정의 양상에 대해 기록을 통해 천착해 볼 것이다. 나아가 모정이 누정으로 대체되는 지점과 그 안에서의 풍류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다층 혹은 중층공감장으로서의 모정에 대한 현대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 살

1)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편, 『통하다-호남의 감성』, 전라도닷컴, 2011, 177쪽.

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풍류에 대한 이해의 지점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개념에서 보다 확대된 어떤 특이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때-거기’의 ‘풍류’를 지금 ‘우리’의 삶에 투영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를 되묻는 일이기도 하다. 즉, 풍류의 현대성을 상정하고, 그것의 체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담을 것이다.

2. 정치·문화공간으로서의 모정과 누정

2.1. 모정의 현대적 개념과 성격

모정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누정은 그간 관련 연구의 성과가 상당 수준 축적되었다. 또한 호남의 대표적인 누정 몇 개는 누정문화의 현대적 계승 차원에서 이미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기획되어 매년 이어져오고 있기도 하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 풍류누정문화제나 선비풍류체험과 같은 행사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정과 관련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 외에 더 이상 진척된 성과가 보이지는 않는다. 1966년 최재울에 의해 호남의 모정이 종합적으로 조사·연구된 이후 더 이상 연구가 확대된 경우는 흔치 않다. 간간히 미술계, 특히 한국 산수화를 언급하는 경우에 모정이 주요 제제가 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정의 성격을 모두 말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모정에 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해 우선 일별한다. 최재울에 의하면 “모정이란 여름철에 부락민이 더위를 피하고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 딸리지 않고 마루뿐인 부락의 공유 공용건물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부락의 공유 공용건물이란 그것이 혈연집단인 한 씨족이 건립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이 건립 관리하고 있거나 등에 관계없이 부락민이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부락의 사실상의 공유건물을 가리킨다.”²⁾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³⁾에도 모정의 개념 및 양상과 관련한 기술이 있다. 여기에서는 모정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 누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단 일별한다.

첫째, 모정은 정호(亭號)가 없고, 누정은 예외 없이 정호가 있다.⁴⁾

둘째, 모정은 마을공동체의 공유재산이고, 누정은 부유한 개인이나 세력 있는 동족집단의 소유이다.

셋째, 모정은 일하는 일꾼의 휴식처로서 청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누정은 양반·유한계급의 집회장소로 노장년층이 많이 이용한다.

넷째, 모정은 초가지붕으로 규모가 작은 것이며, 누정은 기와지붕이고, 대체로 웅장하며 규모가 크다.

다섯째, 모정은 마을입구에 있거나 마을과 농장의 사이에 있고, 누정은 농사작업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경관이 좋고 한적한 곳에 있다.

여섯째, 모정은 농군들이 휴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래와 잡담을 하고, 때로는 음담패설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중적·서민적 분위기가 일반적이고, 누정은 한시와 시조를 읊으며, 시국담을 나누는 귀족적 분위기가 있는 곳이다.

더불어 농업이 현대화된 시기에 이르면 농촌공동체의 모정은 주로 농민의 휴식처로 사용된다. 또한 마을의 집회장소가 되거나 농민교육의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특이하게는 당산나무와 더불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거나 마을극의 주요 무대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⁵⁾ 이런 모정의 성격 혹은 기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존 모정에 대한 시각이 주로 농촌사회에 집중되어 있으

2) 최재술, 「모정이 농촌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호남문화연구』 4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66, 6쪽.

3)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4)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사실 현재 마을이나 도시거주공동체에 세워지고 있는 건물에는 정호가 붙기도 한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참조.

며, 거기에 전통시대의 존재양상은 배제된 채 현재적 관점에서만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짜 현재적 관점인지도 지금은 의문이다.

2.2. 전통시대의 모정과 몇 가지 기능

그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정보다 먼저 기록에 언급된 별서 건축물은 누정이다. 『삼국사기』에는 이미 누정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다. 636년(백제 무왕 37) “팔월 가을, 임금과 신하들이 망해루에서 잔치를 열었다.”⁶⁾는 기록과 655년(백제 의자왕 15) “이월 봄, 태자궁을 화려하게 수리하고, 왕궁 남쪽에는 망해정을 세웠다.”⁷⁾는 기록들이 보인다. 공통점은 이들 모두 왕궁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물론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왕궁 중심의 누정 건축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시대의 궁중 주도의 화려함과는 달리 이러한 별서 건축에는 또 다른 경향이 보인다. 모정이 그것이다. 누정의 모양을 가지고 있되, 누정의 화려함은 배제된, 그야말로 풀로 엮은 간소화된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당시 선종과 유학의 영향에 의해 간소화되면서도 자연에 합일되는 방식으로, 화려한 누정보다는 수수한 모정을 선호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최충헌이 모정(茅亭)을 남산리(男山里) 집 곁에 짓고 소나무 한 쌍을 심었는데, 급제(及第) 최이(崔頤)가 그를 위하여 쌍송시(雙松詩)를 짓고 양제(兩制)의 문사들이 모두 그 시를 화답하였다. 충헌이 늙어 명망 있는 선비 백광신(白光臣) 등을 불러 모아 그 시들을 등급 매기게 하니 급제 정공분(鄭公賁)의 시가 제일이 되었다. 충헌이 그 시를 아뢰니 왕이 공분을 불러 내시원에 소속시키고, 이 규모가 정(亭)의 기문을 지어 찬미하였다.⁸⁾

6) 秋八月 燕群臣於望海樓(『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第五).

7) 春二月 修太子宮極侈麗 立望海亭於王宮南(『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第六).

8) 五月 崔忠獻 作茅亭于男山里第旁 蒔雙松 及第崔頤 爲賦雙松詩 兩制文士皆和 忠獻招集耆儒白光臣等 使第之 及第鄭公賁詩爲魁 忠獻 奏其詩 王 召公賁 屬內侍 李奎報 作亭記

위의 기록을 보면 진강공 최충현이 1205년 이미 자신의 저택 곁에 모정을 건축한 다음,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자, 이를 계기로 시회(詩會)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2년 뒤 이규보가 당대 여러 문인, 정치인들과 함께 최충현이 건립해 운영하던 모정에서 문장을 나누었던 일을 이규보 자신이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규보가 쓴 <진강후모정기(晉康侯茅亭記)>는 당시 모정의 성격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상략) 조용히 쉬면서 유관(遊觀)하는 장소로 말하면, 바로 모정(茅亭)이 있어 그 꼭대기는 뾰족하고 그 몸은 둥글어서, 바라보면 마치 깃으로 덮은 듯한 것이 반공에 높이 휘날린다. 대저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는 데는 청산(靑山)·백운(白雲)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거한 처지가 거기와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반 걸음 정도로 이를 수 없음을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데 어찌 선관(蟬冠)에 구대(龜帶)를 띤 고관이 항상 밝은 곳이겠는가? 이 정자는 성시(城市)를 벗어나지 않고도 초연히 운산(雲山)의 정취를 가져서 사람의 마음을 자연 맑게 한다.(하략)⁹⁾

이에 의하면 우선 ‘조용히 쉬는 곳’으로서 모정이 언급된다. 당시 모정의 형상도 다소간 짐작할 수 있다. 대개 정치로 나아가 어수선한 세속의 일을 돌보다 돌아와 초연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쉬는 곳으로서의 모정을 상상할 수 있겠다. 물론 이후 조선시대의 사서(史書)에도 모정과 관련한 언급들이 보인다.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縵)의 집에 거동하여 문병하니, 이방의가 부축되어 나와 꿇어앉아서 울었다. 임금도 또한 눈물을 흘리고, 안마(鞍馬)와 매[鷹子]를 내려주었다. 인하여 시병(侍病)하는 환자(宦者)·반인(伴人)·비복(婢僕)에게 포물(布物)을 차 등 있게 내려주고 모정(茅亭)에 올라 잔치를 베푸니, 익안대군(義安大君) 이회(李和)·

以美之(『고려사절요』 14권, 희종 성효대왕 을축원년, 1205년). 이하 인용원문과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이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 따른다.

9) 其燕息遊觀之所 則有茅亭在焉 銳其顛圓其體 望之若羽蓋而軒翥於半空者是已 夫澄神汰慮 莫若靑山白雲 然所寄遐阻 恒苦其不可跬步到也 豈蟬首龜腰者之所常履也 茲亭也不出城市 超然有雲山之趣 令人心地自然澄汰(『동국이상국전집』 권23).

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찬성사(贊成事) 이지(李竹) 등이 시연(侍宴)하였다.¹⁰⁾

상왕이 임금과 같이 모정(茅亭)으로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모정이 심히 좁아서, 오직 조연·조말생·윤희·김익정·한혜(韓惠)만이 모시고 앉아 조그마한 술자리를 베풀었다.¹¹⁾

취로정에 나아가 서적을 강(講)하게 하고 어찰로 출제를 내리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宗親)·재추(宰樞) 및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서강(徐岡)·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임원준(任元濬)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걸어서 후원(後苑)에 이르러 이순지(李純之) 등으로 하여금 모정(茅亭)을 세울 터를 보게 하고, 드디어 취로정(翠露亭) 못가에 나아가 서강·임원준 등에게 명하여 병서(兵書)·장자(莊子)·노자(老子)·한문(韓文) 등의 서적을 강(講)하게 하였다.¹²⁾

위의 기록들을 보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모정은 문사들이 시(詩)나 문(文)을 논하는 장소이거나,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간단히 정사를 논하는 장소 내지 위무하는 장소였음이 확실하다. 특히 조선 세조는 궁중에 누정[취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모정을 건립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당시 누정과 모정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당시 궁중에 건립되었던 누정은 정사나 위무보다는 강학적 성격이 더 강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성격과는 전혀 달리, 조선 후기에 이르면 커다란 배에 쉴 수 있게 만든 공간 또한 모정이라 불렀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0) 幸益安大君 芳毅第問疾 芳毅扶出跪泣 上亦墮淚 賜鞍馬鷹子 仍賜侍病宦者 伴人 婢僕布物有差 登茅亭設宴 義安大君 和完山君 天祐贊成事李竹等侍宴(『태조실록』 6권, 태종 3년 8월 1일 병오 2번째 기사, 1403년).

11) 上王與上同御茅亭視事 亭甚窄 惟趙涓 趙末生 尹淮 金益精 韓惠侍坐 設小酌(『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6월 17일 무신 2번째 기사, 1421년).

12) 御忠順堂 設酌 宗親 宰樞及成均大司成徐岡 判奉常寺事 任元濬等入侍 上步至後苑 使李純之等 相構茅亭之基 遂御翠露亭池邊 命岡 元濬等 講 兵書 莊·老子 韓文 等書 又御批出題曰：御翠露池邊 與宗宰論治道 命元濬賦詩 時天大風 明日又欲習陣(『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1일 임술 3번째 기사 1461년).

내(정조)가 이르기를, “옛날에는 태액지(太液池)의 배 위에 홍단(紅緞)으로 휘장을 만들었는데 근래에는 모정(茅亭)을 쓰니, 옛날만 못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다만 배를 띄울 때 옥적(玉笛)을 불도록 하는 것은 다소 생각해 볼만 하다(태액지는 원래 한 무제(漢武帝)가 건장궁(建章宮)을 짓고 그 북쪽에 큰 못을 만들고서 붙인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창덕궁(昌德宮)의 부용정(芙蓉亭)이 있는 연못을 가리킨다. 홍단(紅緞)으로 만든 휘장에 대한 이야기는 확인할 수가 없다. 모정(茅亭)에 대해서는,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윤행임(尹行任)의 설명에 따르면 작은 배에 설치한 초가 정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¹³⁾

강에 당도하니 날이 저물어 불을 켜고 배가 가는데, 배의 크기는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배 위에는 모정(茅亭)을 꾸며 붉은 칠을 하고서 현판을 써 달았는데, 왼쪽은 ‘능라범가(綾羅泛舸)’, 오른쪽 것은 ‘벽한부사(碧漢浮槎)’로, 10여 명의 장정이 뱃줄을 끌어 건너간다. 옛날에 일컫는 물에 뜬 저택[浮家泛宅]이라는 것이 이것인가?(<대동관(大同館)>)¹⁴⁾

첫 번째 인용문은 정조 본인의 언급이 사서에 남은 것으로, 당시 창덕궁 연못에서 일부 뱃놀이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용문은 순조대 연경행에서 당시 서장관을 수행했던 어떤 이의 기록 중 일부이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심경과 함께 한시 1수를 지어 그 심경을 표현하였고, 이어 길 가는 곳마다 그곳의 사정과 감회를 먼저 기술하고 이어 시를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록이다. 여기에 평양의 대동강에 드나드는 수많은 배들 중 모정을 얹은 배의 규모와 그 호사스런 장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 후기부터 조선 당대의 모정은 누정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개념과는 달리 주로 궁중의 특정 장소와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는 모정을 건립함으로써 궁중과 선비들의 검박함을 알리고, 이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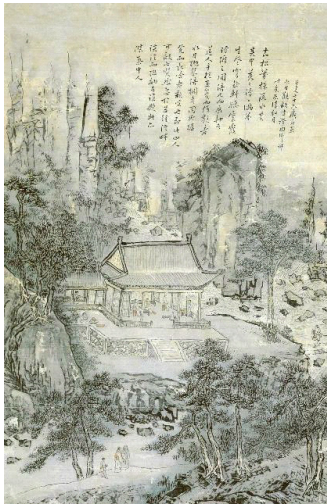
13) 『正祖實錄』 19年 3月 10日.

14) 臨江日暮 火舉而船行 船之大可容百數人 構茅亭於船上 施丹艧而扁其揭 左曰綾羅泛舸 右曰碧漢浮槎 十數長年牽纜而渡 古所稱浮家泛宅者此耶 由大同門入內 扁曰挹灑樓 西望超然台 儘撲撲將飛(작자미상, 『계산기정』 제1권 <출성(出城)>편). 참고로 계해년은 1803년, 순조 3년을 말한다.

해 유교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의 한 결과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¹⁵⁾ 모정과 누정이 다분히 정치 혹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3. 모정에서 누정으로, 풍류호남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누정이 다소간 공적이며 개방적이었다면 모정은 사적이며, 폐쇄적인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차를 즐겼던 조선 선비들의 모습을 표현한 당대의 그림 속 누정과 모정의 모습이나, 여러 시문에 나타난 모정의 묘사에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아래 그림 두 점을 비교해 보자.



[그림 4] 누각아집도(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3] 팽사도(개인
소장)

15) 최소영, 「조선후기 산수화의 모정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9 쪽. 참조.

위 두 그림은 차를 통해 풍류를 누리던 19세기 선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은 이인문의 <누각아집도>로 1820년에 제작되었다. “그림에는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뜨락 한 쪽에서 다동이 차를 다리고 있다. 마당에는 파초, 소철, 괴석이 있고, 탁자에는 화분, 거문고와 같은 악기가 있으며, 다동의 차 끓이는 모습”¹⁶⁾이 묘사되어 있다. 차 풍류를 즐기는 공개적인 장소로서의 누정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도 차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앉은뱅이 의자에 걸터앉은 주인이 붓을 들어 글씨를 쓰고, 다동이 부채를 들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¹⁷⁾ 얼핏 보아도 두 그림의 배경 공간은 뚜렷하게 차이나며, 공개적인 누각의 모습과는 달리 모정은 매우 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던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호남의 누정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난 조금은 특별한 양상을 보인다. 본래 모정이 가지고 있던 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는 누정이 대신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모정의 사정은 주지하다시피 점차 호남농촌사회에서 특별한 공간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남지방의 모정은 이양법(移秧法)의 도입 이래 농촌공동체의 것으로 치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⁸⁾

우선 누정의 공적인 성격에 대해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조선 초에는 한동안 관아를 중심으로 한 누정 건립이 줄을 이었다. 새 나라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누정의 상당수가 이때 이루어졌다. 나주목의 예를 들면 ‘누정’조에 공루로서 무이루(撫夷樓), 동루(東樓), 은행정(銀杏亭), 사청(射廳), 망화루(望華樓), 빙허정(憑虛

16) 이순임, 『조선시대 차문화와 누정문화의 친연성 고찰』, 『차문화산업학』 27, 국제차문화학회, 2015, 22쪽. 본문에 사용된 그림 또한 이 논문에서 재인용함.

17) 이순임, 위의 논문, 23쪽.

18) 이양법은 임란 이후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증보문헌비고』 권147, <전부고> 7편에는 숙종-영조 연간에는 이미 농촌의 한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다음백과사전 참조.

亭)의 이름이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는 민간에서의 누정 건립이 활발해진다. 그 결과 지금 남아있는 누정의 대부분은 16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들이다.¹⁹⁾

그런데 이때 관이 아닌 민간에서 이루어진 누정 건립의 초기 모습은 초정(草亭) 내지 모정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시대·정치적 정황상 유교적 이상과 결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적 이상이 국가의 기본 신조로 개창되면서 초기부터 사가의 사치스러움을 비판하였고, 왕실에서부터 모자토계(茅茨土階)의 검소하고 소박한 뜻을 내세웠다. 모자토계는 요(堯) 임금의 천자가 되어서도 띠풀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이고는 처마 끝을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으며, 뜰은 흙으로 계단을 만들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근검절약을 강조하였고 검박함을 상징한다.”²⁰⁾

더불어 “모정에 특별한 의미를 담기 시작한 것은 초가지붕의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붕 재료의 선택에 있어 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기와 대신에 띠풀이나 갈대 등을 사용하였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따랐다기보다는 성리학, 도교의 신선사상, 노장사상 등의 당대 영향을 준 사상이 주요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박한 재료로 제작된 초가지붕은 검박한 삶을 상징”하였기 때문이다.²¹⁾

앞서 언급한 바, 조선 초 궁궐에 모정을 짓고자 했던 이유 또한 이러한 정치적 이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레 사대부들의 삶에 반영되었고, 사대부의 문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면앙정(旻仰亭)은 이러한 인식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 물론 모든 누정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조선 중기 면앙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

19) 김신중,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문총』 제8집, 태민국학연구원, 2011, 244쪽.

20) 최소영, 앞의 논문, 같은 쪽.

21) 박진홍 외2, 「문헌 및 회화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모정(茅亭)에 대한 인식과 건축적 특징」,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제29권 제8호, 2013, 152쪽. 최소영, 같은 논문, 같은 쪽. 재인용.

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양정의 모태도 본래는 초정, 즉 모정이었다. 면양정을 건립하고 기록한 <면양정기>에 그 사정이 적혀 있다.

(상략) 마침내 수초(守初)가 차지한 바, 어찌 만날 이가 없어 그리 되었겠는가. 처음에 초정(草亭) 몇 칸을 지어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다. 지금의 호조판서 경부(敬夫) 오겸(吳謙) 공(公)이 부모 봉양을 위하여 이 고을 원님으로 나왔으므로, 임자년(1552, 명종7) 봄에 경부(敬夫)를 이끌고 함께 올라가 나무그늘로 가서 앉았는데, 경부(敬夫)가 무너진 정자를 일으키도록 적극 권하며, 또한 그 비용을 도왔다.(하략)²²⁾

수초는 송순의 자(字)이다. 1519년 기묘사화 이후 낙향했던 그는 애초 초정을 하나 지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약 5년간량 지낸 후,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되어 더 이상 초정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그의 나이 60세 때 당시 담양 부사였던 오겸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립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지어진 작품이 바로 <면양정삼언가>와 <면양정잡가>, <면양정가> 등이다. 벌써 '면양'이라는 그 이름에 송순의 호연지기와 풍류가 더불어 드러난다. 이로 인해 누정문화 혹은 모정문화의 진수를 드러낼 수 있었던 작품이 바로 일련의 '면양정시'가 아닐까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물아일체'라 일컬을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과 띠집, 그리고 사람이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지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十年을 經營하야 草廬 한 間 지어너니

半間은 淸風이요 半間은 明月이라

江山을 드릴 뉘 업스니 돌너 두고 보리라

(經營兮十年作草堂兮三間明月兮淸風咸收拾兮時完惟江山兮無處納散而置兮觀之)

22) 竟爲守初所占 豈非有遇而然歟 初作草亭數間 歲久頽毀 今民部尙書吳公謙敬夫 爲養出守是府 壬子春 拉敬夫同登 就樹陰而坐 敬夫力勸起廢 且助其費(『면양정기』, 『면양집』).

이 작품은 그가 남긴 <면양정잡가> 2수 중 두 번째 수이다. 자연에 묻혀 안분자족하는 송순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십 년 동안 초가집 한 칸을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엔 청풍과 명월만이 있다. 물론 사람은 거기에 동화되어, 있음과 없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강산도 가져다가 함께 있고 싶으나 초정이 너무 좁아 더 이상 가져올 곳이 없다고 하였다.

인위(人爲)는 어디에도 개입할 공간이 없다. 그야말로 자연만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송순이 살고 싶은 진짜 공간인 것이다. 초가 한 칸에 만족하고 그것조차 욕심내지 않고 자연과 함께 나누며, 강호 자연을 즐기는 전원에서의 송순의 자족한 일상임이 분명하다. 물론 면양정이 모정으로서 사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건립된 이후 면양정은 당대 호남문인들의 산실이자 호남가단(湖南歌壇)의 시원(始原)이 되기도 하였다.

쉽게 보면, 특히 누정과 관련하여 “풍류는 자연과 친화하는 가운데 시문과 청담을 즐기는 풍치 있고 우아한 생활태도를 뜻하는 사대부들의 여가활동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적이면서도 관계맺음을 지향하는 활동인데, 누정에는 풍류의 이러한 측면이 여실히 반영”²³⁾되어 있다는 점은 물론 부인할 수 없다. ‘강호가도의 구현’이라는 당대 문학의 이상적 목표와도 충분히 맞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누정과 누정풍류는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 충분히 구현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확인된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과거에, 혹은 어떤 유산이나 행위에 관련한다는 조건에서만 머문다면 풍류는 더 이상 살아있는 가치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누정풍류 나아가 호남풍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풍류란 그 어의(語意)에 내포된 대로 살아 움직이는 삶의 한 단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애초 ‘현묘지도(玄妙之道)’를 의미하기도 했으며, ‘자연(自然)’이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한 양상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또 마

23) 최수용·강민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도출 방안 연구」, 『브랜드디자인 학연구』 12,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4, 178쪽.

당의 극(劇)이기도 하였으며, 마을의 굿이자 축제의 양상이기도 하였다. 굳이 지금-여기에서 풍류를 말하자면, 그것은 ‘촛불’이 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신한류(新韓流)’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풍류는 여전히 ‘움직이며’ 또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그저 옛 선비들의 유유자적한 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을 ‘본 떠 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말 일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감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한 매개어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때-거기’를 말해야 하는 당위를 찾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풍류 나아가 그에 관한 ‘텔링(telling)’은 이제 우리 시대 공감 생성의 한 매개로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텔링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4. 다층공감장으로서의 모정과 ‘일상-텔링’

공감장(共感場, sympathetic field)²⁴⁾이란 “한 마디로 ‘차이들의 마주침’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차이’의 층위는 ‘삶’에 귀속되는 모든 것이다. ‘삶’이라는 단어 앞에 올 수 있는 모든 수식어와 관련된 층위를 아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삶 혹은 사회적 삶, 윤리적 삶 등등의 수식어들이 가지고 있는 층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주침’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마주침의 과정에서 작게는 개인의 감성이 소통되고 공유되며, 크게는 대사회적인 감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²⁵⁾이라고 할 수 있다.

24) 공감장론은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에서 최초로 주장한 이론으로서, “사실상 모든 감성은 공감(共感, sympathy)이다. 공감장이란 그러한 공감의 발생적 조건이자, 상이한 공감들이 마주치고 투쟁하는 관계의 땅이다. 따라서 공감장은 동시에 ‘공감(들)의 장’으로서 나타나고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감성인문학서론』, 도서출판 길, 2017, 11쪽.

25) 조태성, 『참오,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호남문화연구』 제61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7, 72쪽.

특히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감성이 주로 소통되고 공유되었던 모정(茅亭)은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공감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특정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혹은 공감(들)의 장으로 구성되는 과정”²⁶⁾에서의 모정의 역할에 주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모정에서 이루어지던 마을굿이나 축제 등은 특정 마을 “공동체의 구호이자 공동체들 사이의 연대의 매개이며, 그런 연대 가운데 구성되는 공감장 형성 요건 중의 하나”²⁷⁾였음을 의미한다. 광주 칠석동 부용정 마당(현재는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고싸움놀이’도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모정은 누정과 같이 하나의 특정 장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여러 층위의 공감의 장을 형성하게 했던 장소였을 수도 있다.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정사를 논하던 정치의 장이자 위무의 장, 마을계 등과 같은 결사(結社)의 장 등 공적 공감장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담(茶談)을 주고받던 사적 공감장의 기능 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기도 하다. 때론 성년식과 관련한 생의 문제나 뱃놀이와 같은 유흥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모정은 적어도 조선시대에 서라면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누구든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일상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모정을 통해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런 일상의 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할 공감의 장과 좋은 삶의 한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그런 ‘일상-텔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이며, 다양한 일상만큼이나 다양한 혹은 중층의 공감콘텐츠를 만들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것들은 나의 삶과는 조금 ‘별개’²⁸⁾인 문제들에 치우쳐 있었다.

26) 조태성, 「연대의 노래, 공동체의 형성」, 『인간·환경·미래』 19집,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7, 30쪽.

27) 조태성, 위의 논문, 같은 쪽.

28) 이것은 시대적 괴리감일 수도 있고, 나와 무관한 사람 혹은 장소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하나의 유적이라고 불리는 것들 모두를 일컫는다. 적어도 나 혹은 나의 주변과 관련이 없는 이른 바 ‘별개’인 것들과 ‘공감’을 형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사실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이야기문학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누정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재적 가치 혹은 인물에 대한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콘텐츠(화)의 생명은 주지하다시피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누정과 관련해서는 ‘누정’ 그 자체보다는 ‘인물, 그것도 대개 주인이 누구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생애담이나 에피소드의 ‘텔링’에 그치고 만다는 점이 아쉽다는 점이다. 즉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²⁹⁾

누정이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생애가 어떠했고 어떤 작품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텔링 혹은 콘텐츠화가 삶에 대한 공감이 아닌 하나의 이익원으로써 작동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특정 공간이나 인물의 대한 스토리텔링 혹은 문화콘텐츠화는 반드시 공감을 매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천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흔히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가공되는 문학공간이다. ‘스토리(Story)+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기술의 총체다. 이때 이야기는 특정 부류를 타깃으로 하여야 효과가 크며 내용은 듣는 이의 흥미를 자극하며 그 방향은 다중성(多衆性)을 지녀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2006, 381쪽.)”고 말한다.

이때 다중성이 곧 공감의 전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공감의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축의 설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이란 스토리를 구성하는, 즉 텔링하는 일종의 ‘길’의 기준점을 의미한다. 하나의 누정 내부에서 ‘길’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누정 사이를 연결하는 ‘길’과 그 길을 통한 스토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축’과 ‘길’은 그래서 누정이

29) 조태성, 「영산강 권역의 누정문학 연구」, 『호남문화연구』 5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97쪽.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 현상과 실체로서의 문화가 온
축된 융합콘텐츠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위의 인용문처럼 이제 이러한 축과 길이 모정을 통해 다시금 설정될 가능성
은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모정은 누정의 역사적 전개 과
정에서 보자면, 호남을 매개로 했을 때 비로소 ‘지금-여기’ 풍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장터의 수많은 마당판, 놀이판, 소리판, 이야기판 등과 같은 ‘판’의 풍
류, 더 멀리는 면앙, 송강, 고산 등으로 이어지는 선비풍류까지, 신분을 막론하
고 시공을 막론하여 무수한 공감을 형성하게 했던 장소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정 혹은 누정이라는 전통시대 문화공간의 비실체적 조형요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정과 누정은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비어
있음 혹은 경계가 없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할 터인데, 이러한 경계 없음을 통해
시공간은 항상 순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무수한 일상의 마주침이 반복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일종의 ‘통(通)의 미학’이라 이름 지을 만하며, 모정이 가진 ‘열려 있음’
의 건축 의도와 그것이 주는 삶의 동질감,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
감적 요소의 재현을 기대할 만하다. 예를 들어 역사적 애환과 시정(詩情)의 통
합적 텔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그때-거기의 모정, 지금-여기 막걸리로부터
비롯되는 삶의 굴곡과 노래의 텔링 등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하다.

이렇게 모정은 “비어있는 무형의 공간에 유형의 쉬지 않는 채움을 통해 지
속적인 변화의 생명력을 가지게 하고, 각각의 개체성을 가지는 단위공간은 투
명성과 결합하여 무한한 우주를 담아내어 한정되고 고정된 인식의 경계를 무
화(無化)시키는 비실체성을 지니”³¹⁾게 되는 것이다. 그 경계가 무화된 빈 공간

30) 조태성, 위의 논문, 98쪽.

31) 김지은·성윤정·김개천, 「한국전통누정의 비실체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권 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1, 77쪽.

에 또 다른 일상이 공감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또다시, 그리고 늘 새로운 생명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모정풍류의 시작이다.

물론 더 이상 모정을 누정과 별다른 어떤 장소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 우리 곁에 있는 모정은 이미 그런 성격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 그 모습에서 새로운 풍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정을 축으로 판의 길을 재조명하고, 그 안에서 문학과 예술의 현대적 접목을 기획하며, 그것이 대다수 일상을 포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모정한담’과 같은 생활공동체들의 모임 장소, 동네 혹은 마을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마을 만들기 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일종의 ‘마당’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체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일상이 텔레화된 ‘호남모정지도’의 제작도 고려해 볼 만하다. 모정과 관련한 문학, 예술 등의 원천 자료들을 먼저 아카이빙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길을 만들고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당대인들의 삶이 뚜렷이 드러날 수 있는 일상문화지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유산기록형 지도들과는 다른, 보다 분명한 공감지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다음 글이 곧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 순정한 마음들이 지켜져 온 복림리 마을은 시방은 70가구가 못되게 쪼그라들었지만 한때는 150가구가 넘던 큰 마을이었다. 모정 옆으로는 우물이 있고 우물걸로 흐르는 시냇물에 피리새끼 중택이 미꾸자리 우렁 대사리 같은 것이 혼전만전했다.

“그 자리서 잡아서 그 자리서 시쳐서(씻어서) 그 자리서 낚여묵었제.”

모정과 우물 사이에 병풍처럼 시멘트담이 자리한 것은 우물에 나온 여자들이 일하는 모양새를 내려다보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그 담벼락에 누가 하트 모양을 이파리처럼 새겨 놓았다. 동네 머시매 짓인지 가이내 짓인지 손가락으로 그 두근두근 심장을 그려 넣었을 적 그 마음이 어여쁘지 아니한가.

“남자분들은 처어그 회관 앞 널룬 정자 차지하고 여자들은 일로 모태제. 두절(꽤거리)로 화토도 치고, 전에는 10원짜린디 인자 100원짜리 되얏어. 따고 내 개비

에 안너. 도로 쥐불제. 그러문 그란다고 웃고. 여가 그라고 좋아. 죽신(죽순) 날 때는 준신 끊어갓고 무쳐묵고 도토리 떨어질 때는 그 놈 주서서 묵 썬묵고 그라고 살아.”

때마침 한 가닥 청풍. “오메 시원한그으!”(화순 쌍수정에 마실 나온 동네 어르신들)³²⁾

5. 맺음말

이 글은 전통시대 문화공간으로서의 모정과 누정을 통해 호남풍류의 양상과 공감장으로서의 역할을 천착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풍류’를 지금 우리의 삶에 투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모정문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헌상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 모정풍류에 관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를 스스로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더욱 지속되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3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편, 앞의 책, 206쪽.

참고문헌

『계산기정』

『고려사절요』

『동국이상국전집』

『면양집』

『三國史記』

『세조실록』

『세종실록』

『증보문헌비고』

김신중,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론총』 제8집, 태민국학연구원, 2011, 244쪽.

(UCI : G704-SER000003095.2011..8.006)

김지은·성윤정·김개천, 「한국전통누정의 비실체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12권 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1, 77쪽.

(UCI : G704-001069.2011.12.4.021)

박진홍·서명수·한동수, 「문헌 및 회화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모정(茅亭)에 대한 인식과 건축적 특징」,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제29권 제8호, 2013, 152쪽.

(UCI : G704-A00167.2013.29.08.002)

이순임, 「조선시대 차문화와 누정문화의 친연성 고찰」, 『차문화산업학』 27, 국제차문화학회, 2015, 22쪽.

(UCI : G704-SER000002303.2015.27..002)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2006.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원, 『공감장이란 무엇인가-감성인문학서론』, 도서출판 길, 201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학국사업단 편, 『통하다-호남의 감성』, 전라도닷컴, 2011.

조태성, 「참요, 감성적 근대성의 한 징후」, 『호남문화연구』 제61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7, 72쪽.

조태성, 「연대의 노래, 공동체의 형성」, 『인간·환경·미래』 19집,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7, 30쪽.

(DOI : 10.34162/hefins.2017..19.002)

조태성, 「영산강 권역의 누정문학 연구」, 『호남문화연구』 5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97쪽.

(UCI : G704-001854.2014..56.004)

최소영, 「조선후기 산수화의 모정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9쪽.

최수웅·강민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도출 방안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2,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4, 178쪽.

(UCI : G704-SER000008876.2014.12.2.019)

최재율, 「모정이 농촌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호남문화연구』 4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66, 6쪽.

다음백과사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 Abstract |

Cultural space in Honam, Pungryu[風流] and Sympathetic field

Jo, Tae-seong
Chonnam Univ. Prof.

This article has studied Mojeong[茅亭] and Pavilion[樓亭] as the representative cultural space of Honam in the traditional period. But I did not simply list or analyze the situation in such spaces. Rather, I studied the primitive character of various spaces and how they have been inherited, and how they can be reinterpreted from a modern perspective.

Thus, first of all, I examined the modern concept and character as a political and cultural space. And I have learned about aspects of Mojeong[茅亭] in the traditional period. Furthermore, I looked at the point where Mojeong[茅亭] is replaced by Pavilion[樓亭] and the pattern of Pungryu[風流] in it. Through this, I also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modern interpretation of Mojeong as a multi-Sympathetic field[共感場]. The intention was to examine through the pavilion culture for the possibility of what points of Pungryu[風流], which has been used as an abstract concept, can now be projected into our lives.

Key words : Mojeong[茅亭], Pavilion[樓亭], Pungryu[風流], Culture space, Sympathetic field[共感場]

투고일 : 2020년 1월 21일 심사기간 : 1월 22일 - 1월 24일 게재확정일 : 1월 30일